

한전배구단 광주유치 재점화 “때늦은 손짓” vs “명분 충분”

“본사 이전 4년됐지만 본사 따로, 배구단 따로”



한국전력 배구단의 연고를 광주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공개적으로 제기되면서 한전배구단 광주유치론이 3년 만에 재점화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배구계 안팎에서는 “버스 떠난 뒤 때늦은 손짓”이라는 부정론과 “충분한 명분이 있다”는 주장이 양분하고 있다.

3월 지역 정가와 배구계에 따르면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정순애(더불어민주당·서구2) 의원은 최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전이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한지 벌써 4년이 됐지만, 배구단은 수원시와의 계약 등을 이유로 연고지를 옮기지 못하고 있어 ‘본사 따로, 스포츠단 따로’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광주시가 2014년 한전배구단 유치를 향해서 제출했고, 한전은 이듬해 10월 ‘광주 이전’을 원칙적으로 표명했음에도 전용경기장과 부대시설 등에 대한 이견으로 유치가 무산된 상태”라며 “수원시와의 연고지 계약이 내년 4월 만료되는 만큼, 배구단 이전을 적극 추진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전배구단 유치 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파급 효과가 크고 배구, 농구 등 동계스포츠 불모지인 광주에 새로운 즐길거리·볼거리를 제공할 뿐 아니라 관광·숙박·요식업 등 지역 경제 활성화와 유소년 배구,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담겨 있다.

지역 배구계의 인프라 등 명분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초·중·고·대학팀에 이어 실업팀까지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고, 생활체육 동호회 240여개, 교직원 배구팀 80여개가 운영되고 전국 유일의 좌식배구(장애인배구)팀이 구성되는 등 저변이 탄탄하고 활성화돼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들고 있다.

영주체육관을 배구장으로 리모델링하면 전용경기장 논란도 잡힐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한전 럭비단이 2년 전 연고지인 전남으로 이전했고, 한국도로공사 배구단이 3년 전 본사 소재지를 따라 경북 김천혁신도시로 이전한 점도 광주 유치의 당위성으로 내세우고 있다.

전남수 광주시 배구협회장은 “프로팀이 오면 초등에서 프로까지 전 단계에 걸쳐 팀을 갖추는 셈이어서,

프로구단 유치는 마지막 퍼즐”이라며 “올 상반기 배구인을 중심으로 600여명이 서명에 동참한 데 이어 하반기에도 서명운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반대론과 회의적 시각도 적지 않다.

우선 거리문제가 걸림돌이다. 리그경기 등 대다수 경기가 수도권에서 열릴 장거리 이동에 따른 컨디션 난조 등이 우려된다. 또 실력있는 연습파트너 역시 수도권에 몰려 있어 친선경기나 연습경기 등을 위해 또 다시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 부담이 만만찮다.

선수들과 코치진은 물론 구단 사무원 직원 대부분이 상당수가 거주하고 있는 점도, 버스로 3시간 남짓 소요되는 남쪽 도시로의 이전에 발목을 잡고 있다.

전용경기장 문제도 난제다. 리모델링이 아닌 그럴싸한 전용경기장을 신축할 경우 최소 수백억원이 필요해 재정적 부담이 클 수 있다. 한전이 수도권에 지역 체육관을 신축하기로 한 점도 ‘때늦은 유치’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한전배구단이 2008년 프로배구 남자부 준회원으로 가입한 이후 10년동안 수원을 기반으로 성장했고, 홈경기 만원관중 기록을 같이치우는 등 열성적 팬들도 적지 않은 상황에서 광주·전남이 수도권의 두터운 팬층을 흡수할 수 있을 지도 의문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본사와 배구단이 두 곳으로 나뉘어 한 지붕 두 가지 쪽 마냥 지내야 해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이전 문제의 경우 찬반 양론으로 갈려 쉽지 않은 문제다. 합리적인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김학범호, 금메달 걸고 금의환향

이른 아침에도 수백명 팬들 모여… “우승하니 좋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대회 2연패에 성공한 23세 이하(U-23) 축구대표팀이 금의환향했다.

김학범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3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이른 아침에도 300여명의 팬들이 미중나와 태극전사들을 반겼다. 교복을 입은 여학생부터 중년 남성까지 다양한 연령대 팬들이 눈에 띄었다.

미리 대기하고 있던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홍명보 전무 등은 선수들의 어깨를 두드려주며 노고를 치하했다.

김 감독은 “우승하니 좋다. 선수들이 열심히 해줘서 좋은 성적, 좋은 결과 가져온 것 같다. 모든 축구팬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선수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 싸워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K리그로 이어져서 불이 일고 선수들도 팀으로 돌아가 좋은 축구를 해 팬들이 운동을 찾을 수 있게 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주장의 입무를 100% 완수한 손흥민(토트넘)은 “많은 팬들이 환영해주셔서 감사하다. 상당히 영광스럽

다. ‘많은 선수와 팬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과연 금메달을 걸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했다.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한국 축구를 위해 더 열심히 하는 선수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선수단은 짧은 해단식 후 각각의 소속팀으로 돌아갔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A대표팀의 부름을 받은 선수들은 하루 휴식 후 광주 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NFC)로 합류한다. 아시안게임 멤버 중 9월 친선전에 나설 A대표팀 소속 인원은 손흥민, 조현우(대구FC), 황희찬(김해오시바), 김민재(전북), 황희찬(함부르크), 이승우(베르더), 황인범(아산무궁화), 김문환(부산) 등이다.

A대표팀은 7일 코스타리카(고양), 11일 칠레(수원)와의 2연전을 치른다.

‘88일 만에 등판’ 오타니, 홈런 허용하고 2⅓이닝 2실점

88일 만에 등판한 일본의 ‘야구 천재’ 오타니 쇼헤이(24·LA 에인절스)가 아쉬움을 남긴채 마운드를 내려갔다.

오타니는 3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의 미닛 메이드 파크에서 열린 2018 메이저리그(MLB) 휴스턴 애스트로스와 경기에서 선발 등판해 2⅓이닝 2피안타(1홈런) 2실점을 기록했다.

오타니가 마운드에 오른 것은 6월 7일 캔자스시티 로열스전 이후 88일 만이다.

당시 경기에서 오른 팔꿈치 통증을 느낀 오타니는 오른 팔꿈치 내측 측부인대 부상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수술없이 주사 치료를 받았다. 일단 타자로는 출전이 가능하다는 의료진 소견에 따라 오타니는 한 달 뒤인 7월 4일 시애틀 매리너

스전부터 타자로만 경기에 나섰다. 타자로 내서는 동시에 마운드 복귀를 준비한 오타니는 지난달 31일 시플레이션 게임을 거쳐 이날 투수 복귀전을 가졌다. 49개의 공을 던진 오타니는 30개를 스트라이크존에 꽂아넣었다. 탈삼진 2개를 잡았고, 볼넷도 2개를 내줬다.

투구 내용은 아쉬웠다. 1회말 첫 상대 조지 스프링어에 우전 안타를 허용한 오타니는 호세 알투베를 좌익수 뜬공으로 잡고 한숨을 돌렸다. 알렉스 브레그먼을 2루수 플라이로 처리한 오타니는 카를로스 코페이를 볼넷으로 내보내 2사 1, 2루의 위기에 몰렸다. 오타니는 타일러 화이트를 삼진으로 처리하고 실점을 막았다.

오타니는 2회말을 삼자범퇴로 끝냈지만 3회말 들어 제구까지 흔들리면서 토니 캠프를 볼넷으로 내보



냈다. 오타니는 스프링어에 5구째 슬라이더를 통타당해 좌월 투런포를 얻어맞았다.

결국 에인절스 벤치는 오타니를 강판하고 짐 존슨을 마운드에 올렸다. 4승 1패를 기록 중인 오타니의 시즌 평균자책점은 3.10에서 3.31까지 치솟았다.

오승환, 샌디에이고전 1이닝 무실점…한미일 통산 1000탈삼진

‘돌부처’ 오승환(36·콜로라도 로키스)이 이틀 만에 등판해 시즌 19호 홀드를 수확했다.

오승환은 3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의 펙코 파크에서 열린 2018 메이저리그(MLB)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의 경기에서 콜로라도가 6-3으로 앞

선 7회말 마운드에 올랐다.

오승환은 트레이비스 안코우스키를 3루수 직산타로 처리하며 기분 좋게 출발했다. 이어 상대한 갈베스가 번트를 시도했으나 타구가 뜨면서 포수 아이아베타가 잡아냈고, 오승환은 아웃카운트를 늘렸다. 이어 루이스 우리아스를 상대한

오승환은 볼카운트 1B2S에서 헛스윙을 유도 삼진을 잡아냈다.

1이닝 무안타 1탈삼진 무실점을 기록한 오승환은 시즌 19호 홀드(5승 3패 3세이브)를 수확했다.

탈삼진 1개를 추가한 오승환은 한·미·일 통산 1000탈삼진을 달성했다.

자연의 숨겨진 보물 창고

■ 숲이 있는

지리산 둘레길

바쁜 일상, 각박한 도시에서 벗어나
지리산에서 잠시 쉬어가세요

지리산 둘레길은 지리산 주변 3개도(전북, 전남, 경남) 5개 시·군(남원, 구례, 하동, 산청, 함양)을 잇는 295km의 장거리 도보길로 전년 구례군은 지리산은천, 칠성미골, 화연사, 설진강, 운조루, 패야골, 연곡사 등을 지나며 주천-선동 구간부터 물어재-기탄 구간까지 총 6개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